

강진군 동계 전지훈련 열기 ‘후끈’

200여팀 연인원 3만8000명 찾아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력
숙박·음식점·전통시장 소비효과

강진군이 2026년 동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단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전지훈련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에는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사이클 등 6개 종목, 200여 개 팀, 연인원 3만80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군에 머물며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팀별 평균 체류 기간은 약 9일로 집계돼 강진군이 단순 방문형이 아닌 장기 체류형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 조건과 함께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축구 전용구장, 천연잔디 구장, 다용도 실내체육관, 웨이트트레이

닝센터, 수영장 등 훈련과 경기에 최적화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종목별 경기장 사용료 면제,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무료 이용 등 선수단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전지훈련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관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선수단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선수단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의 장기 체류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암면 학장리 일대에는 제2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해 ‘강진 베이스볼파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야구장 4면을 갖춘 시설을 공

공 스포츠 인프라로 전환해 사회인·유소년 야구는 물론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가능한 복합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협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년 전라남도 최초의 WK리그 여자프로축구단 ‘강진WFC’를 출범시키며 여자축구 중심지로의 도약에도 나선다. 연고지 이전에 맞춰 경기장과 훈련장, 클럽하우스 등 관련 인프리를 정비하고 연중 상시 훈련 체계를 구축해 전지훈련 수요 확보와 전국 단위 대회, 스포츠리그 개최 등 다종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2026년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전지훈련 유치부터 프로 스포츠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활력과 군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동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단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강진군 축구 전용구장에서 훈련 중인 선수단 모습. <강진군 제공>

나주물, 설 명절 맞아

전품목 20% 할인 기획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나주물’을 통해 전품목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2025년 연 매출 16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나주물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나주물 설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나주배, 쌀, 한라봉, 흥어, 한우 등 나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행사 기간에 나주물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천년이음 나주배’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나주시장 품질보증을 받은 고품질 배로 성장축전제를 사용하지 않아 배 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신청하세요

장성군 각각 3억·7500만원 응자

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자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기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응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기구당 최대 7500만 원 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응자 실행을 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2월 11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으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지역농협 6곳, 통합 RPC 사업 참여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장흥군의 지역 농협 6곳이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농협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은 중앙정부의 ‘1·시·군 1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에 따라 관내 6개 지역농협이 기존 통합RPC에 참여해 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벼 가공시설 현대화로 장흥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농협은 기존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에 정남 진장농협과 장흥관산농협이 정남진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통합RPC에 참여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입주자 모집

미분양 13 세대 31일 공개 추첨

화순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모집한다.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해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농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조성한 단지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위치해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자리해 생활 및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24년 150세대 중 137세대를 기준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했으며, 올해는

미분양 13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이번 분양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여건을 갖춘 농업인 가운데, 공고문에 명시된 기본 자격과 세부 자격을 충족하는 자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개방, 26일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31일 입주자 공개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화순군 농촌활성화과장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잔여 세대 분양을 통해 타운하우스 전 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젊은 농업 인력을 유치하여 살맛 나는 농업, 부자 농촌 실험이 앞당겨 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2026·2027 해양수산 지원사업 공모

함평군이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함평군은 수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2027년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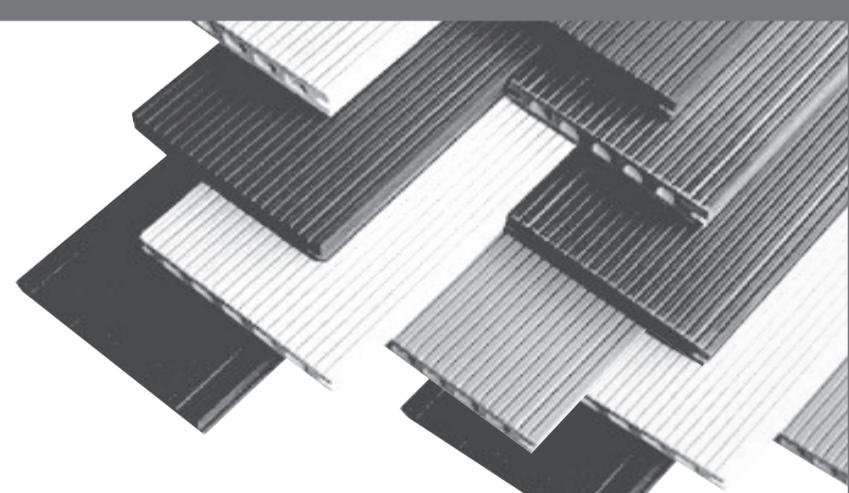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 어업인단체다. 다만 사업별로 세부 자격 요건과 필수 조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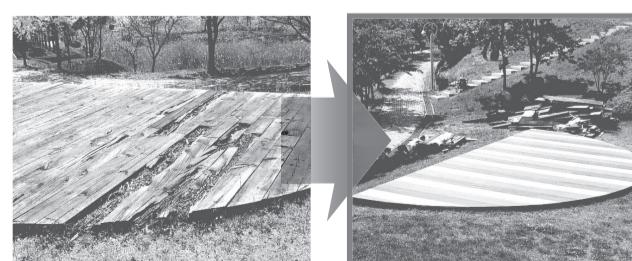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